

보고서는 Finnvera의 국제적 경쟁력과 관련하여 여전히 개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핀란드 통상정책이 타국보다 수출금융지원에 대한 비중을 덜 두고 있기 때문에 Finnvera가 위험인수에 있어 타 ECA보다 소극적이고 국제규범도 너무 엄격히 준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향후 핀란드 수출진흥을 위한 공적수출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Finnvera가 ECA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연구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개선방안은 우선 수출금융 지원사례를 기업규모 및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하는 것이다. 동 방법으로 Finnvera는 자사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기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Finnvera 서비스사용 빈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보고서는 자사의 기업 지원효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고객의 수요 및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두가지 사항을 Finnvera가 내부에서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통계시스템을 개발할 것도 제안하였다. 실제 Finnvera는 국내금융 지원(domestic financing)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정밀한 통계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정확한 수출 통계를 통해 핀란드 기업 지원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점을 통한 중소기업 마케팅을 강화하여 Finnvera의 수출금융 사용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으며, 타국 ECA의 지원 변화 태도를 주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진경】

◆ EDC, 나이지리아 First Bank of Nigeria PLC 앞 신용공여한도 지원의향서 발급

캐나다 수출신용기관인 EDC는 4월 7일 나이지리아의 First Bank of Nigeria PLC와 2,500만 달러의 신용공여한도 체결을 위한 지원의향서(Letter of Offer)를 발급하였다. 동 신용공여한도는 수출신용기관이 나이지리아의 은행과 체결한 최초의 중기 신용공여한도 설정 사례가 되며 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에서의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로서 전력,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캐나다의 수출 및 투자에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편, First Bank of Nigeria PLC는 1894년에 설립되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최대 금융서비스 그룹 중 하나로 나이지리아내 389개의 최대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

【박해선】